어떤 걸 제일이라고 내세울게 없는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한마음이라는 거는 체가 없어서 한번 훌떡 넘어간다면 일 초도 걸리지 않아. 그렇다면 굴왕신이나 업보라든가 병고 액난이 그렇게 고정되게 나에게만 딱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박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예 그 병고 액난을 다 겪어야 합니다. 팔자 운명을 다 겪어야 돼. 그리고 삼재팔난을 다 겪어야 돼.

그러나 그 마음이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고정된 게 아닌 것이 공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훌떡,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이 여길 지금 걸어오셨습니다. 걸어오시다가 고정되게 딱 서서 있었습니까, 굴왕신이 들었다고? 또 병고 액난이 들었다고 거기 꼭 고대로 서서 있었습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듯이 한 발짝 떼 놓으면 굴왕신 그 한 구절이 훌떡 넘어져. 이게 바로 한생각에 그 굴왕신이 그냥 뛰어 넘어진다는 겁니다. 은산철벽이라 그러는 것도 그 한생각에 달렸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발 떼어 놓을 때 그건 벌써 고정되지 않으니까 거기 닿지도 않았어. 굴왕신이라는 이름조차도 없을 정도로 휘딱 뛰어넘었다. 또 한 발자국 뛰어넘었다. 그러니 뒤도 벌써 한 발짝 뛰어넘었으니까 뒤도 없지, 앞은 가지 않았으니 없지. 이거는 그저 신발 밑에, 발밑에 그저 그냥 훅딱훅딱 훅딱훅딱 뛰어넘었으니 무슨 팔자가 거기 담기며, 거기 붙었으며, 삼재팔난이 거기 붙었으며, 또는 굴왕신이 거기 붙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린 거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아주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세요. 간단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쉽고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 '깨닫지 못해서 중생이다' 이런 생각도 마시고,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의 그 뜻을 믿는다면, 믿는다면 모든 걸,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 저거 그냥 보고 가겠습니까?" 한다면 그냥 보고 못 가고, 저거 그냥 보고 간다 이러고 그냥 가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미지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맛을 보지 못해서 그러시는데 요렇게 한 접시에다가, 요것도 표현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와 똑같은 얘깁니다. 접시에다 갖은 과일을 다 깎아 놓았습니다. 포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포크냐, 이거냐?" 하니까 "포크도 아니고 이 과일도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데서 내가 먹고 싶을 때 탁 꽂아서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것 꽂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래 먹고 싶을 때에 먹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바로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내놓을 수 없는 것을 바로 이 먹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먹고 싶은 거….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내 앞에 병고가 닥쳤으면 닥친 대로 그냥 그저 몰락 넣어 버리고 태워 버리고 마는 겁니다. 몰락 넣어 버려! 몰락 그냥! 뛰어넘어! 뛰어넘으면 되는 거라. 사과 깎아 놓고 배 깎아 놨으면 하나 뚝 찍어서 먹어 버리면 그만인 거라. 그러고 또 배 먹고 싶으면 배 찍어. 또 먹어. 과일이 없으면 또 고만둬. 그렇듯이 생활하면서 나한테 닥치는 대로 놔 버려라 이거야. 용광로에 넣어 버리듯이 넣어 버리면, 놔 버리면 그것이 바로 공부가 참 진실하게 돼서 앞으로 참나에게 그 무궁무진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전자에도 나는 그런 소리 가끔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빚을 많이 졌으면 우리 식구들이 살 수가 없다. 그러나 빚을 갚으려면 이렇게 계발이 돼야 하고, 이렇게 물리가 터져야 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서의 한마음이 돼 주고, 이렇게 마음을 조절할 줄 알고 서로 한마음이 돼 줄 줄 알아야 된다. 이래야만 우리나라가 좀 더 나아진다. 그리고 풍족해지고 빛도 갚아진다. 이것은 누구나가 하는 말이지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된, 진실하게 현실로 나오게끔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말이 법입니다. (중략)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고 하시겠죠? 우리가 물질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질로써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전이 됐다 할지라도 물질로써 한다는 거는 물질을 죽이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을 죽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냐!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 드린 걸 한번 참작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잘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일체제불의 마음도 둘이 아닌 까닭에 여기저기 부처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마음은 한마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는 아니 될 겁니다. (녹음 안됨) 여러분이 참 그 뭐, 요새 금강댐을 한다 어쩐다 이런 것도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서 우리 마음이, 일체제불이 한마음 한뜻이라면 어찌 남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누구를 해하지 않으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말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래도 이건 법이 되지 않는 법. 그러니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는 것 일부러 잡아서 할 생각 하지 말고, 또 내가 이 공부를 잘해서 아주 부처가 다 됐다고 뻐길 것도 없고.

그러니 한 발짝 한 발짝 딛고 돌아가는 이런 멋있는, 끊임없는 생사윤회에 걸리지 않고 돌아가는 이 마당에서 어떤 발자국 떼어 놓을 때, 어떤 과일을 먹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과일을 먹었는데 이것이 제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처님 법은 어떠한 걸 제일이라고 내세울 게 없는 게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니 시시각각 작든지 크든지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조절하고 환경에 따라서 모든 걸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 마음으로 금방금방 자기의 그 가환도 금방 떠넘겨, 그냥. 자꾸 그걸 붙잡고 늘어지고, 그걸 붙잡고 '이걸 어쩌면 좋은가? 이거를 낫게 해 주시오. 이거를 해결해 주시오.' 그러고 붙잡고 늘어지니까 이놈의 게 넘어가지 않지 않나. 그냥 몰팡하게 내버려. 내버려. 모든 걸 용광로에다 넣어 버려요. 그런다면 바로 자동적으로 생산이 돼서 그게 나와요.

부처님 법이 경전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전에 있는 부처님 법이 딱딱하고 모르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급하니까. 우리 지금 국내에서도 급하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도리를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이걸 떠나서 진실히 자기를 믿고 자기한테다가 맡겨서 '모든 거를 여기서 할 수가 있으니까.' 하고 믿기만 한다면 그거는 뭐든지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조그만 거 큰 거 따지지 말고, 남의 일이든 자기 일이든, 얘기는 바깥으로 말고 속으로만 알고 자꾸자꾸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해 보세요. 그럼 앞으로 국내의 문제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씀해 드린 거를 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말로 해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지금 말로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현실로서 지금 그렇게 실험을 통해서 자꾸 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어저께도 얘기하고 갔지마는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분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실험을 통해서 자꾸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멋집니다." 이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어째서…. 난 나쁘다곤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상에 반찬을 놓을 때 종지도 있어야 쓰겠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지도 부처인 것이죠. 작고 큰 게 없어요. 여러분이 다 똑같습니다. 나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아주.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크고 작고 그런 게 없는 반면에 여러분은 급한 대로, 앞에 닥치는 것대로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인이 되시라는 얘깁니다. 자유인이 되시라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못 믿습니까? 자신의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수만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 이 마음이 참 싱숭생숭한 사람도 그 마음만 잡아서 나한테다가 딱 집어넣고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밀어 준다면 그것도 빠릅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멋있는 자유인으로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이 멋있는, 부처님 법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법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그 법이, 여러분을 살리고 죽이는 거는 여러분에 달렸습니다.

그것을 체험해 보고 실험해 보신 분들은 "참으로 생활해 가면서 그걸 실험을 통해서 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아, 자기가 거기 있더군요." 합디다. 누구도 모르는 거. 보이지도 않는 거. "있는 걸 그러면 내놔 봐라." 그랬더니 아주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데요. 허허허. 그래서 듣기 좋았습니다. 새소리가 나고 봄에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이것이 바로 공생을 하면서 공용을 하는 공음파를 보내고 주고, 이심전심으로써 우리가 같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못 믿고 자기 자신을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힘이 없어, 중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인공, 한마음이시여.' 하면 일체가, 전체가 그 한마음 속에 다 들어 있는데 원력이 얼마나 무쌍합니까? 마음이라는 건 내놓을 게 없고 체가 없기 때문에 그 무전자의 이치는 유전자로 통해서…, 또는 형상이 되죠.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로 돌아가는 이 멋진 마음, 이 멋진 아름다움, 멋진 법. 한 번 치면 그냥 딱 잘라지는 거. 잘라지면서도 잘라짐이 없는 그 멋진 법. 여러분이 이 무서운 법이면서도 자비스러운 이 법을 참, 생각해 보시면 여간 좋지 않습니다.

이 법이 얼마나 좋았던지, 배꼽 있는 데를 훌렁 뒤집어 놓으려면 뒤집어 놓고 제껴 놓으려면 제껴 놓거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 예전에 우리 토끼치기 했죠? 요만한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되고,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되고 손가락 하나 없어도 이 마음의 막대기 하나만 갖는다면, 한 나라를 이렇게 하려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도 해. 그러나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질 않는 반면에 그렇게 해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리가 될 수도 없고요.

아까 그냥 대충대충 말했는데 지금 시급한 문제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지금 국내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국내의 모든 문제점을 우리가 마음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힘을 들여서 아이고, 그걸 생각을 하고 꼬집어서 생각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한번 생각나걸랑은 이렇게 한번 해서 딱 맡겨 놓는, 집어 놓는 거면 그냥 그것이 다 해결을 하니까요. 컴퓨터처럼 말이에요. 우린 자연 컴퓨터, 자연 천체망원경, 영사기, 탐지기 또 전체 무전통신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진통이라 하면 책정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오온의 수레바퀴를 굴릴 수 있다는 요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마음의 도리를 의심치 말고 믿으십시오. 자기 자신의 주인공을 믿으시면서 거기다가 일체를 다…. 들이고 낸다는 건 거기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닫을 때 저 빗장을 쥐지 않는다면 열고 닫을 수 없습니다. 뭐, 길게 말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고 또 짧게 말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니 심사숙고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가정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또 회사에서도 그렇고 장사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가고 오면서도 그걸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 보실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 환경에 따라서 내 앞에 병고가 닥쳤으면 닥친 대로
> 그저 몰락 넣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마는 겁니다.
> 몰락 넣어버려! 몰락 그냥!
> 뛰어넘어! 뛰어넘으면 되는 거라.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11월 2일 일반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